국가 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

끊임없는 도전과 투자만이 살길이다. 포스코의 박태준 회장님이 하신 말이다. 왜 끊임없는 도전과 투자를 해야 하는가 나는 생각해보았다 세상은 변하고 발전 또는 퇴보 하기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투자해야 발전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지금은 국가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예전에 나는 자동차정비2급 자격증 하나로 현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다.
1992년 9월, 육군 병장 수송부 만기제대 하였다. 경주상고를 졸업하고 수송부에서 정비를 하게 된 이유도 군대가기 전 서울에서 1년간 카센터에서 정비를 하였기에 보병으로 가서 근무하다가 카센터 경력이 있어서 기계화 사단이 되면서 일병때 수송부로 발령이 났다. 군 생활은 차를 정비하면서 보냈고 군대에서 자동차 정비2급을 처음으로 취득하게 되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현실의 벽은 힘들었다. 카센터로 취업하는데 당시 급여가 보너스도 없이 월 15만원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기술을 더 배운다는 조건으로 15만원 준다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선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카센터를 포기하고 고향 경주로 내려와 지인 소개로 현 남양유업 공무팀에 군대제대 후 한달만에 입사하게 되었다. 공장장님 면접에서 자동차 정비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데 왜 정비공장 안 가느냐고 했을 때 돈이 적어서 안 간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 자격증 덕분인지 당시 공무팀 냉동실에서 1명 TO가 발생되어 그 쪽으로 보직을 배정받았다. 입사 3개월 지나고 급여가 35만원 보너스 당시 600% 도 있고 카센터 월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3교대 근무하면서 직장생활 돈 버는 재미로 잘 다녔다. 냉동실 운전파트라서 몸은 편하지만 별로 발전은 없었다. 노력해야 하는데 편한 생활에 적응되어갔다. 냉동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는데 독학으로 하다보니 너무 어렵고  경주에서 실기 배울 때도 없고 그야말로 포기하고 살았다. 야근 근무 하면서 시간이 많은데 자격증 공부가 넘 어려워서 경제에 관한 책만 읽었다. 10년이란 세월이 금방 흘러가면서 새로운 이**팀장님이 오면서 자신의 몸 값을 올리는데 최고가 국가기술작격증 이라고 자격증 따라면서 강조하였다. 자격증도 없이 어떻게 근무를 하냐면서 핀잔도 주었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이** 팀장님 오신지 1년만에 드디어 2003년 공조냉동기계기능사를 취득하게 되었다. 필기는 한번에 패스 했지만 실기는 3번 만에 합격을 하였다. 동료들도 인정을 해 주었고 팀장님이 정말 칭찬을 많이 해 주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연이어 바로 그해 보일러 기능사, 가스기능사도

취득해서 2003년도에는 기능사 3개를 취득하였다. 내가 근무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23살에 입사해서 34살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처음으로 취득하였다.  그 이후로 가스 기능장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였지만 어려워서 포기하고 또 다시 현실에 안주 하면서 경제에 관한 책만 읽었다. 재테크에 관한 책은 머리에 잘 들어왔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다. 자격증 책은 보기가 싫고 경제에 관한 책은 재미가 있었고 집중도 잘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6년 회사가 인력 조정을 하면서 냉동실 인원 1명이 공작실로 가야 하는데 내가 당첨되었다. 나보다 선임이 있었는데 선임은 자격증도 없는데 왜 내가 가야하는지 당시로서는 이해 하기가 어려웠다. 정말 가기 싫었다. 편하게 근무하고 쉽게 돈을 버는데 공작실에서 용접도 해야하고 힘든일을 하여야 하기에 가기 싫었다. 노조 지부장도 나 몰라라 하고 새로운 최**팀장도 나를 지명해서 보냈기에 몇 년 후 냉동실 정년자가 발생하면 다시 온다고 하였지만 믿기가 어려었다.
현실은 어쩔 수 가 없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용접도 배우고 정비도 하고 힘든 생활에 주간 근무라서 야간 수당도 없고 매일 잔업에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냉동실 근무 생활이 정말 부러웠다. 여전히 자격증과는 담 쌓았고 주식 공부만 하고 주식매매만 하는 생활이었다. 기술의 발전은 전혀없고 시간만 가면 급여가 나오는 생활이었다.
2년 후  2008년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서 23명이 타 공장으로 발령을 가게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공작실에서 총 8명인데 2명이 가게 되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모두가 타 공장에 가기 싫어 하였다. 선발 기준이며 자격증이며,  근태 보다는  힘의 논리로 결정되었기에 그저 운명에 맡겼다.

다행스럽게 명단 발표가 났는데 나는 안 가게 되었고 나보다 선임2명이 타 공장으로 가게 되었다. 회사는 냉정하였다 이익을 우선하기에 정은 필요가 없는 곳이다. 많은 동료들이 서로 원수가 되었고 23명은 객지로 쫓겨 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회사를 믿어서도 안되고 회사 이후의 삶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돈이 많아야 하기에 주식투자를 했다 우량주식만 매매해도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기는 정말 힘들었다. 아직도 20년이상 투자하지만 자신있게 벌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수 많은 경험속에서 아직 살아 남은것만도 다행

이라 생각들고 자신의 계좌를 지키는 것만도 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죽을 때 까지 주식 투자할 생각이지만 쉽게 잃지는 않을 자긴감도 생기는 것은 젊을 때부터 경제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일찍 주식 투자를 했기에 노하우가  쌓였고 철저하게 우량주만 매매 하였다. 하지만 주식투자도 별 소득없는 생활이었다. 이제는 예전에 이**팀장님 말씀대로 몸값을 올려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 할 수 있을까 자격증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2010년 설비보전 기능사취득, 2011년 용접기능장 취득, 2012년 공조냉동산업기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사 취득, 2013년 용접기사 취득, 2014년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취득, 2015년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취득, 2016년 배관산업기사, 배관기능사 취득, 2018년 판금제관기능사, 판금제관기능장 취득, 자격증 총 18개 중에서 14개를 41살 이후에 다 취득 하였다. 지금도 도전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격증 언제든지 필드에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인 것이다. 이외에도 AUTO CAD 과정 수료, ITQ과정 수료, 직훈교사2급 취득, 울산 용접학원에서 파이프 용접 교육등 특근과 잔업을 포기하고 자격증과 실무 용접에 많이 투자하였다. 용접기능장은 폴리텍 야간 재직자 과정을 다니면서 취득하는데 회사 잔업수당을 포기하였다. 타 회사들은 잔업 인정해주면서 재직자 과정을 다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안해주는지 비교가 되었다. 개인이 잔업을 포기하면서 자격증 취득에 목 매는것은 자기의 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도 회사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다. 동료들도 돈 도 못버는데 왜 하냐고 반문하였고 일은 안 하고 휴가도 자주 사용 하였고 자격증 따러 다닌다고 몇몇 동료들은 시기를 하였다. 지금은 주 52시간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운동도 할 수있고 공부 투자 시간도 있지만 당시에는 자격증  투자하는 시간만큼 돈을 벌 수가 없었다.
용접기능장 과정을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고 저녁7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용접 연습을 하였다. 기초가 없었기에 20명 재직자 중에서 용접을 내가 제일 못 하였다. 하물며 CO2 용접기는 처음 만져보았다. 실기 시험일은 다가오고 내가 용접을 잘 하지 못해 재직자 동료들이 나의 손을 많이 잡아 주었다. 지금까지 내가 회사에서 한 용접은 아마츄어였던 것이다. 나는 고마워서 10시 퇴근하면 바로 돼지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사곤 하였다. 돌이켜 보면 밤 10시30에 먹었던 그 국밥이 내 인생에서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꼭 합격이라는 목표가 있었기에 힘들었지만 재직자 동료들과 같이 합격하자는 목표로 열심히 연습 하였고 배고플 때 먹는 돼지국밥이 정말 맛있는 국밥이었다. 재

직자 동료들이 많은 도움과 나 또한 휴가를 사용해 가면서 아침부터 폴리텍에서 밥 사먹어 가면서 용접연습을 하였다 남들보다 못 하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였기에 용접기능장을 한번에 합격을 할 수 가 있었다. 같이 배운 재직자 동료들 절반은 불합격 되었다. 특수용접기능사도 하계휴가를 포기하면서 연습하였다. 용접이 중요하기에 산업설비에 관한 자격증 중에서 용접만 잘 하면 관련 작격증을 쉽게 취득 할 수 있었다 2012년 2013년 울산으로 많이 다녔다. 개인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고 토요일 특근 도 포기하고 용접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울산으로 다녔다. 그때 만남 선 후배들이 아직 연락을 하고 지내고 1명은 호주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 1명은 호주에서 용접을 실패하고 청소를 하면서 살고 있다. 또 다른 친구들은 국내에서 용접으로 먹고 살고 있다. 용접도 배우고 인맥도 형성하고 울산에서의 만남도 나름 재미가 있었다. 문제는 가정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자격증 투자를 위해서 인강도 투자 하였고 자재비, 학원비 돈이 계속 들어 가야 하기에 단기적으로 가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 용접배운다고 울산에서 찜질방에서도 많이 자고 밥도 사 먹어야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돈을 써야 하기에 가정에는 마이너스 생활이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선뜻 자격증 따지 않는 이유도 결국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쉽게 투자해주지 않는다. 우선의 일이 우선이지 기초와 품질에 대한 자격증 투자는 그 다음이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나는 울산에서 파이프 6G 용접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직장동료들은 언제 다 써먹느냐 얘기하고 돈은 언제 버느냐 하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을 하였기에 용접은 잘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나 또한 정년 이후를 위해 투자하고 있고 세상일은 모르는 것이어서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 상고를 졸업했지만 기능장 자격증 덕분으로 학점은행으로 기계공학사 학위도 받았다. 나는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 했기에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한다. 마찬가지고 타인을 보는 기준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관련 자격증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이 자격증을 못 따는 이유도 어렵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두렵고 힘들어서 포기 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미루기 때문에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기에 지금 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이다.

2013년 용접기사를 취득하고 공단에 가서 시험 감독을 신청하였다. 2011년 용접기능장도 취득하였기에 자신있게 신청 할 수 있었고 2014년부터 지금까

지 실기 감독도 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큰 영광이었다. 과정형평가 용접기사 모너티링 위원도 위촉 받았고 실기시험도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집행 하였다. 몇 년 동안 나의 휴대폰은 실기감독, 직훈선생님, 폴리텍교수, 공고선생님, 현장용접사, 자격증 공부 하면서 만난 선후배님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사람은 죽을 때 까지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하기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 휴대폰에 저장된 인맥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고 있다.
와이프는 이제 그만공부 하라고 한다. 젊을 때 공부 안하고 왜 40살 넘어서 이렇게 하냐고 한다. 지금은 자식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를 한다. 최근 몇 년동안  나 자신은 엄청 발전하였다. 40살 이전에 왜 노력 안 했는지 가끔 후회도 한다. 크나큰 공백의 시간인 것이다.
늦게 시작했지만 끊임없이 도전과 투자를 할 계획이다. 계획하고 투자하고 또 다시 반성하고 다시 재 도전하는 삶의 연속인 것이다.
나이들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귀찮아 지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돈 보다도 시간이 더 중용한 시기다. 그렇다고 가정의 생활을 잃고 살지는 않는다. 이제는 주 52시간 으로 건강과, 가정, 직장, 자격증 공부를 균형있게 맞춰어 가고 있다.
그동안 자격증 공부며 용접배운 비용은 다 벌었다. 주말 감독도 나가고 감독일이 없을 때는 용접알바로 하루 15만원 또는 20만원씩 받았고 대학교 특강도 자주가고 대학교 도제교육 한달에 주말포함 100시간에 700만원도 벌어봤고  지금 까지 투자한 돈은 거의 다 벌었다. 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가르쳐야 하기에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나의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남는 장사인 것이었다. 투자한 돈은 다 회수 되었고 공부든 운동이던지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한다.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았다. 용접에 대한 인맥이 형성되었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인맥들이 자연스럽게 형성 되었다
돌이켜보면 2006년 보직이동으로 용접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되었다. 그때 냉동실에 그냥 있었더라면 용접은 영원히 배우지 못한 것이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보직이동이라는 큰 선물이다. 올해 다시 12년만에 주52시간 되면서 냉동실 편한 곳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기회도 있었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남들은 왜 그런 편한 보직을 가지 않냐고 말 하지만 나는 이미 변해있었고 더 많은 발전을 해야하고 또 다시 나태한 생활을 할 것 같은 환경이 싫어서 지금도 용접을 하고 만족하고 있다.
직장은 소중한 곳이다 우리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있고 나 또한 직장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안전한 직장이 있었기에 도전과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자격증실기 시험도 거의 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용접기사 90점,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91점, 용접산업기사 86점, 특수용접기능사 79점, 용접기능장 76점, 용접산업기사 86점, 용접기능사 84점, 판금제관기능장 70점, 배관산업기사76점, 배관기능사75점, 에너지관리기능장75점, 배관기능장79점,등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다. 40살이후의 모든 시험은 거의다 한번에 합격을 하였고 판금제관기능장과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만 2번 만에 합격을 하였다.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받고 창원, 부산, 울산, 성남, 대구로 학원, 학교도 견학 하였고 맣이 뛰어다니고 새로운 인맥들도 형성 하였다.
자격증 취득과 실무용접을 잘 배울려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 나는 기능부학생들에게도 찾아가서 용접과 판금제관을 배웠다. 유능한 선생님을 잘 만나야 기능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또한 배울 때 돈을 아끼면 안된다.
선생님의 지식과 기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대우를 해 주어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투자로 발전하는 삶이 될 것이다. 세상은 점점 세계화, 다양화, 자동화 되고 근로자의 입지와 자영업자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살아남기위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하고 최고가 되기위해서는 도전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최고가 될 수 있다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조건을 장악하고, 오늘도 나는 도전과 투자를 하며 나의 인생을 즐기고 있다. 감사합니다